

증례 I - 3

## 총의치의 간편한 임상 재부착 과정

김지혜, 송광엽, 박찬운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총의치의 제작과정에서 임상 재부착 과정은 최적의 교합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과정이다. 총의치의 제작과정에서 인공치 배열시에 잘 맞추어진 교합은 중합과정을 거치면서, 의치상 재료의 체적 변화 등과 같이 의치용 재료에 기안하는 결함, 의치의 마무리, 연마하기 위하여 모형으로부터 제거할 때 일어나는 의치상의 변형이나 이외의 다른 기공과정에서의 결함, 치과의사의 임상적 판단이나 여러 임상과정에서의 결함들 때문에 교합의 결함이 발생되므로 교합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구강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합 조정은 어느 한편에서 조기접촉이 있다면 의치가 움직이므로서, 환자 구강 내에서의 정확한 교합 오차의 발견 및 교합조정은 불가능하다. 이에 구강 밖에서 교합 조정을 하기 위해서 교합기에 재부착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적인 재부착 과정은 의치 내면의 undercut을 blockout 하여서 remount cast를 만든 후에 quick-setting plaster를 이용하여 교합기에 재부착을 시행한다. 이러한 과정은 환자와 술자에서 적지않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증례는 Izharul H.A.(J Prosthet Dent 1996;76:321-4)가 소개한 방법을 이용하여 교합기에 재부착을 위해서 acrylic resin으로 상·하악에 custom made mounting jigs를 제작하여 교합기상에 위치시키고, 환자의 내원시 중심위를 채득한 다음 custom made mounting jigs 상에 putty material을 이용하여 임상 재부착 과정을 단순화 시켰다. 이러한 과정은 remount cast를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을 감소시키고, 의치의 undercut의 blockout이 필요하지 않고, chairside에서 간편하게 시행이 가능하며, putty material은 record로서 보관하여 재 내원시에도 이용이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술식으로 총의치 증례에서 chairside에서 빠른 시간에 임상 재부착을 시행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